

북한특수군 광주서 폭동 주도?...“근거없는 자의적 주장”

80년 5월 그날의 진실 되짚는다

광주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씨 ‘왜곡 도서’ 허위사실 스카이데일리 신빙성 없는 보도 5·18조사위, 광주 등 주장 억측 아시아자동차 피탈 개인적 추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잠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국가차원의 진상 규명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극우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씨는 시민군을 ‘광수’(광주 침투 북한특수군)로 지칭하며 왜곡된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일부 극우 매체에서도 신원불명의 계엄군·탈북자 등의 증언을 근거로 왜곡 보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사의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의 위원장까지 ‘북한군 개입설’을 두둔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광주의 진실을 부정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5·18 당시 북한특수군 광주 일원 침투 주장은 2006년부터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임천용·이주성·정명운씨 등 탈북자들은 월간지 기고, 기자회견, 책자 발간 및 방송 출연 등을 통해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중 정명운씨는 자신이 북한특수부대 소속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 ‘실제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의 존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북한군 개입 주장의 핵심 인물인 지만원씨는 △5·18은 김일성 교시로 이루어졌다는 북한 교과서와 북한 문헌 △북한 전역 도시에서 여러 날 거행되는 5·18기념행사 △영화 김군의 결론, 김군은 북한 감장수였다 등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 증거를 담은 책(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을 발간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5·18 단편서’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자신의 주장이 군 및 안기부 자료, 북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광주특수군 일명 ‘광수1번’으로 지목했던 ‘김군’은 3년 전 평범한 시민인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조사위는 시민군 사진 속 실제 인물은 효덕동에서 사망한 ‘김종철’이 아니라 차북환씨로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또 그가 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는 법원이 5·18기념재단의 출판 및 배포금지 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그는 이후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허

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2023년 1월 16일 교도소에 수감된 뒤 올해 1월 출소했으나 5·18 모욕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씨의 ‘옥중서신’을 연재하며 자의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 폄훼하는 보도를 일삼아오고 있다.

특히 ‘김군’으로 지목된 차북환씨와 80년 5월 광수의 목·얼굴 너비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의혹의 의뢰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터무니없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 주장은 조사위의 진상조사를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

조사위는 5·18 당시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돼 있다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육안으로만 유사해 보이는 사진을 제시하며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의 인물과 북한 관련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것이다.

또한 20사단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과 관련한 지만원씨의 주장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개인적 추정에 불과했고, 광주시민 사망자 154명 중 총상 사망자 117명의 75%에 해당하는 88명이 무기고 총에 의해 사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조사위는 661명에 달하는 지만원의 ‘광수’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결론지었고, 청주 유골이 광주에 침투했다가 사망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주장은 조사결과 그 근거들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5·18 당시 희생된 고 조사위·최미애씨의 유가족과 재단, 광주시가 스카이데일리 대표 A씨와 5·18 왜곡 기사를 작성한 B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과 교육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5·18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단순한 조롱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지씨는 대법원 판례와 국가보안법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 사실을 부정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국가기관에서조차 이러한 막무가내식 주장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미래세대들에게 5·18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교육은 물론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5·18민주묘지 방문한 외국인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엿새 앞둔 12일 외국인들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둘러보며 80년 5월 광주를 배우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 학생들, 캐나다서 ‘5·18 기념행사’ 연다

시교육청 ‘책으로 세계로’ 운영 5·18 사진전·플래시몹 등 선배

광주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18일 캐나다에서 ‘5·18 기념행사’를 연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일부터 23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책으로 세계로’는 광주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빛고를 독서 마라톤 활동 우수자 등 ‘다시 책으로, 다함께 책으로’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추천을 받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선

발했다. 이들은 세계 문학의 거장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앨리스 먼로의 문학적 유산을 탐구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탐방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창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현지인들과 우리 예술문화를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에틀란타한국문화원 최유은 영사 접견 및 한국교육원장 강연 △조지아텍, 에모스대, 토론토대 등 현지 명문 대학 방문과 현지 학생 교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포럼 운영 △‘소년이 온다’를 통한 학생 주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 강연 △K-컬처 공연 및 K-문학 강연 △헤밍웨이 박물관 방문 △토론토 공공도서관 ‘앨리스 먼로 문학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18일에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한인학생회(UTKSA)와 함께 토론토 네이슨

필립스광장에서 ‘5·18 기념행사’가 열린다. 학생들은 ‘위대한 유산: 5·18 그날의 기록과 진실’ 사진전을 선보이고, 토론토의 ‘타임스퀘어’로 지정되는 던다스 광장에서 5·18 플래시몹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영문판 문고 ‘10일간의 항쟁’ 책자를 현지에서 배부하며, 5월 광주 정신의 세계화와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책으로 세계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세계 속에 한국 문학과 한국어를 알리고,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찾아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경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계엄군 맞서 싸운 5·18 시민군, 홀로 생 마감 ‘안타까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운 시민군이 45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홀로 생을 마감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2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김모씨(61)가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북구 용봉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와 연관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온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가족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유공자인 김씨는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기동타격대 대원 중 한 명이다. 당시 고교 2학년생이었던 그는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이 쏜 총에 손을 다쳤고,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거쳐 1980년 10월 30일 석방됐지만, 구타와 고문으로 몸 구석구

석에 상처가 남아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힘겹게 생활하며 기초 주거급여대상자로 지내왔다.

경찰은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가족이 없을 시 무연고 장례로 치뤄질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p>쌍촌동 (4층건물) 매매</p> <p>상가 주택</p> <p>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p> <p>▶ 원가 급매</p> <p>13억 9억8천만</p>	<p>장성토지 (담양)</p>  <p>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p> <p>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수도 완비</p>	<p>상가 매매 (상무지구)</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 유흥기능 (룸,노래홀,홀덤빠) ▶ 6층 (전용 60평)</p> <p>(보2천, 월수익 250만)</p> <p>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p>	<p>법원 경매</p> <p>★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p> <p>특수 전문 (유치권, 법사)</p>
<p>010-6670-9800</p>		<p>062-382-5500</p>	